

인세시비, 그 서글픈 환원론

80년대 한국문학사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상업적으로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화제작 「태백산맥」을 둘러싸고 이즈음 벌어진 작가 조정래씨와 출판사 한길사측의 '인세시비'가 세간의 썩 반갑잖은 관심을 끌고 있다.

「태백산맥」인세시비는 이미 여러 지면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 작가 조씨가 자신이 작성한 인지장부에 나타난 발행부수와 출판사의 발행부수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일어났다.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조씨는 인지에 비표를 해두고 그 비표가 찍히지 않은 책을 찾아내 부정출판의 증거물로 제시, 「태백산맥」의 출판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길사측은 인지위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태백산맥」의 출판권을 가져가려는 작가의 책략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서로 범접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팽팽한 명분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출판계의 해묵은 치부 가운데 하나가 드러났다. 그것이 중론인 이번 실랑이는 여러모로 우리를 착잡한 기분애 빠져들게 한다. 그것이 그런 까닭은, 이런 류의 인세시비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세시비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강구되리라는 기대 또한 현재로서는 무망해 보이기 때문이다. 「태백산맥」을 되찾아 우리들의 관심의 전면으로 부상한 것이지만 그 화제성의 거품을 벗겨볼 경우, 거기에는 이 인세시비가 앞

으로도 언젠가 재발하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체념과도 같은 서글픈 현실이 핵심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책에다 인지를 붙이는 일의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저작자와 출판사간의 상호 신뢰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불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흔히 말하는 출판물 유통구조의 난맥상 때문에 정확한 판매량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출판행위의 전과정이 완전하게 개방되고 노출돼 있어, 예컨대 제본소라든지 세무서의 장부 속에서 정확한 발행부수나 판매부수를 계산해낼 수 있을만큼 우리 출판계의 신용사회로서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정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지란 저작자와 출판사간의 영수증”일 뿐으로 “이 영수증이 무의미하게 되도록 우리사회의 양심과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때 인지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라는 환원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세시비를 보는 우리들의 서글픈 현실이다. —강철주 부장

출판저널

통권 제85호 / 1991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登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允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와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寧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珍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吳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夏 | 安秉永 |
| 安輝滄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錫廉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映 | 李萬烈 | 李炳勸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靉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慶鍾 | 鄭雲映 | 鄭晉錫 |
| 鄭鎮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樹慶 | 韓勝憲 | 許顯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임금년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 이야기

「인간의 역사」(원제: 인간은 어떻게 거인이 되었나?)로 우리 독자들에게도 낯익은 러시아의 과학자이며 작가인 미하일 일리인은 책에 관한 흥미로운 저작으로 「책의 역사」(원제: 백지 위에 검은 것)를 남기고 있다. 그의 또다른 저술인 「세계의 역사」(원제: 지금 몇시니?) 및 「등불의 역사」(원제: 책상 위의 태양)를 한편에 모아 번역한 「책·시계·등불의 역사」(심성보 역, 연구사 간)에서 '책의 운명'에 대한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모든 책에는 나름대로 운명이 있다”는 라틴어 금언이 있다. 책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보다 불가사의하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시인 알크만이 쓴 책을 보자.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아주 묘한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만일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매장되지 않았더라면 훨씬 전에 훼손되어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이 두루마리는 마치 사람이 땅속에 묻히듯이 묻혔던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는 미이라와 함께 무덤 속에 편지와 책을 묻는 풍습이 있었다. 몇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편지, 그 사람이 보던 책과 시는 이렇게 미이라의 가슴 위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집트의 무덤은 도서관이 보존할 수 없었던 많은 책들을 보존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시가지가 줄리어스 시저의 군대에 점령당했을 때 불타버렸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도서관의 목록 조각들뿐이다.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것은 오래전에 죽어서 잊혀진 사람의 이름뿐이듯이 한때는 독자를 웃기거나 감동시켰던 온갖 책들도 지금은 제목만 남아있다.(중략)

양피지 값이 비쌌던 중세에는, 사람들은 양피지에 씌어진 원래 문장을 칼로 깎아내고 거기에 씌어 있던 그리스 시나 로마의 역사 대신 성자의 생활을 썼다. 이렇게 원문을 깎아내는 일, 즉 책을 파괴하는 일을 전문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이런 파괴당한 책들(팔렘프세스트: 원래 씌어 있던 글자를 지워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문구를 써넣은 양피지)을 복원하는 방법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많은 책들이 사형집행인들(문자를 깎아내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어갔을 것이다. 잉크가 양피지에 아주 깊이 배어 있었으므로 심하게 깎아낸 사본일지라도 원본의 흔적은 남아있었다. 그 사본을 화학약품 속에 담그면 파랗고 빨간 오래된 문자의 모양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도 별로 기쁜 일은 못되었다. 왜냐하면 화학약품 속에 담긴 사본은 곧 검게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원문이 아주 흐려져서 읽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큰 도서관에는 대부분 이렇게 두번 죽어버린 사본이 있었다. 팔렘프세스트를 되살리던 어떤 학자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감추려고 일부러 수많은 사본들을 파괴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중략)

최근에는 옛 문자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탄닌산 대신에 다른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원문이 나타났을 때 재빨리 사진을 찍은 다음 산을 씻어 없애는 것이다. 게다가 얼마전부터는 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도 팔렘프세스트에 씌어있는 숨겨진 문자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책에는 지금 말한 그런 적들(책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들도 있었다. 이 친구들은 이집트의 무덤속, 폼페이의 잿더미 아래, 그리고 수도원의 창고 안에서 책을 찾아냈다. 이처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시피오 마페가 어떻게 '베로나 문고'를 발견했는가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마페가 베로나 문고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유명한 학자, 마비용과 몽포우콩이 이 문고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말았다는 사실뿐이었다. 마페는 그들의 실패담을 듣고서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고문서학자도, 사본을 감정하는 감정사도 아니었지만 열심히 문고를 찾는 작업에 매달렸다.

드디어 그는 과거에 학자들이 찾아보았는 데도 찾지 못했던 곳, 즉 베로나에 있는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그 문고를 찾아냈다. 책은 그 도서관의 책장 속에는 없었다. 마페보다 앞서 도서관에 들렀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사다리를 기어올라가 책장 꼭대기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책장 꼭대기에는 귀중한 사본들이 오랜 세월동안 먼지 속에 파묻힌 채 저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마페는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 거기에는 제일 오래된 라틴어 사본이 남아있었던 것이다.